

근대 초기 매체의 세계 인식과 문학사

박승희*

- I. 서론
- II. 근대 초기 보편 이념의 형성 과정
 - 1. 『소년』의 이념과 보편성
 - 2. 『청춘』에 나타난 인류의 구성원리
 - 3. 『학지광』의 개체적 초월과 세계보편
- III. 안화의 세계인식과 『조선문학사』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근대 초기 매체에 나타난 세계인식을 살핀 것이다. 세계인식이란 ‘보편성의 독자적 구현’이라는 당대 지식 이념의 보편적 측면을 의미한다. 근대 초기, 서구 문명에 대한 열정은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큰 변화를 보인다. 즉 민족과 문명이란 표상을 동시에 추구한 근대 지식인들의 서술적 욕망, 즉 민족의 부국강병과 문명 제국(諸國)으로의 편입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이후, 지금까지 당대 지식과 이념을 규정하던 서구 문명이 그 보편성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14년에 발발하여 1918년까지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은 서구 문명의 허상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이와 같은 변화는 ‘인류’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세계 보편의 인식을 등장시켰으며 조선은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그 세계사적 가치를 당대 지식의 이념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이념은 당대의 매체를 통해 주로 표현된 바 있다. 최남선의 『소년』과 『청춘』, 일본 유학생의 대표적인 매체였던 『학지광』 등은 세계 보편적 이념과 인류적 가치를 전파하고 생산하는 주요 매체였다. 또한 안학의 『조선문학사』와 같은 국학 저서에서도 세계 보편적 이념과 그 가치는 확인된다. 이는 국문학사의 보편적 상승이라는 열망을 내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근대초기, 매체, 소년, 청춘, 학지광, 조선문학사

I. 서론

근대 초기, 조선은 민족(국민) 국가로서의 ‘자기 인식(self-knowledge)’과 함께 국가 부재의 상황을 동시에 경험한다. 민족에 대한 집단적 위기의식과 민족 국가로서의 보편성을 향한 욕망이 동시에 시대 담론의 내적 조건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근대 초기 지식 형성 과정의 이중성(민족의 상상적 재현과 서구문명에 대한 판타지) 혹은 집단적 착시 현상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근대 초기의 시대 담론은 민족의 ‘발전’과 근대적 보편을 향한 열정으로 구성된다.

그 첫째는 말과 글, 즉 언어활동을 통해 민족을 표상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기표 아래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가공할 집단적 동원의 힘, 민족으로 호명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다채로운 계급적·성적·문화적 차이와 삶의 무수한 파편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집단적 착시를 기획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 서술을 통해 민족 표상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당대 지식인들의 자기 인식과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 민족사 기술은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를 서술 단위로 하고 민족 국가의 범위 내에서 회고적인 방식으로 전사(前史)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부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선취하는 근대적인 서술 전략이다.²⁾ 즉 역사 서술을 통해 민족을 통시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민족 국가 부재의 현실을 극복하는 담론적 실천(민족 범위 내의 모든 차이를 동일화 하고 회집시킬 수 있는 상상된 공동체의 구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더욱이 ‘국사’라는 개념조차 낯설던 시대에 역사의 기원을 스스로 정립하는 ‘주체적인 민족사 기술’은 주로 국수, 국혼과 같은 추상적이고 신비화된 기표를 통해 민족 개념을 구축한다. ‘민족의 정신’, ‘민족의 혼’과 같은 탈역사화된 관념들을 선형적 실체로 하는 역사의 재구성, 그것은 민족사 서술이 형이상학적 차원에 놓여있다는 증거이다. 결국 부재와 결핍을 벗어나고자 한 당대의 욕망은 민족의 형이상학적 서술을 통해 민족이라는 집단적 착시현상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담론은 근대문명에 대한 모방의 열정이다. 한국 근대가 모방의 열정으로 그 입구를 구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화주의의 화(華)·이(夷)라는 절대적 구분으로부터 개화반개화(야만)³⁾으로 재편성된 세계사적 상황은 모방을 전제한 세계 보편으로의 편입을 강렬하게 요구한다. 즉 서구 문명에 대한 모방의 욕망은 세계사로의 편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다양한 소망들을 문명이라는 기표에 투영하고 세계의 보편문명을 사회적 담론의 최전선에 배치한다. 그들

2) 차승기, 『민족주의, 문학사, 강요된 화해』, 김철·신형기 외, 『문학속의 파시즘』, 삼인, 2001, p.43.

3)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자 논설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문명국으로,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등을 개화국, 한국, 중국, 페르시아, 터키를 반개화국,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일대를 야만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은 삶에 결핍된 것, 현재의 모든 욕망들을 문명이라는 표상에 집약적으로 투사한다. 즉 총체적 결핍감에서 비롯된 문명과 계몽의 거대한 이상화와 집단적 판타지는 당시 조선인들을 유혹하는 세계 인식의 중심이었던 것이다.⁴⁾ 하지만 당대의 담론과 지식체계 속에 나타난 이 두 개의 지배적 인식, 즉 민족과 근대 문명은 ‘민족적 특수성과 근대적 보편 사이의 모순’에서 불구하고 근원적인 친연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앙드레 슈미드의 설명처럼 “민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보편적으로 이 시기의 가장 대중적인 모토, 즉 ‘문명개화와 같은 근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통합’⁵⁾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 초기의 담론들은 문명과 국가, 문명지상주의와 민족주의의 함수관계 위에서 민족 주체의 세계 보편성 획득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그것은 곧 민족의 내면적 근거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당대 지식인들은 조선의 근대적 학문 체계와 지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학⁶⁾으로 불리는 자국의 근대 지식 체계는 ‘보편성의 독자적 구현’이라는 이념적 테제를 핵심으로 하여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었다. 여기서 보편성이란 특정 국가나 민족 단위를 넘어서는 일반적 가치 혹은 보편적인 효과를 뜻하며, 독자성이란 자국의 특

4) 앙드레 슈미드,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p.12.

5) 앙드레 슈미드, 정여울 역, 위의 책, p.13.

6) 류준필은 ‘국학’이나 ‘조선학’이란 용어 대신 ‘자국학’이란 용어를 통해 자기 나라에 대한 지식과 그 체계의 의미를 강조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편성 실현의 일반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국학’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국학이란 표현이 일반성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국학 등의 용어가 사용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특수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있다. 류준필, 「1910~20년대 한국에서 자국학의 이념 형성 과정」, 『대동문화연구』5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5. 참조.

질이나 범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편성의 독자적 구현'이란 보편성의 내재화 혹은 내재적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의 지식 이념은 1910년대를 거쳐 1920년대 초에 이르러 그 가시적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특히 1920년대의 지식 이념은 1910년 국권상실 이후 자국 내부에서 일어난 의식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 민족과 문명이란 표상을 동시에 추구한 근대 지식인들의 서술적 욕망, 즉 민족의 부국강병과 문명 제국(諸國)으로의 편입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이후, 지금까지 당대 지식과 이념을 규정하던 서구 문명이 그 보편성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근대 초기의 근대에 대한 모방은 실현 가능한 시간의 문제였다. 개화반개화야만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유럽과 미국의 문명, 아시아의 반개화, 아프리카 등지의 야만이라는 도식은 근본적이기보다는 상황과 시간의 문제였다. 특히 “야만은 반개로 향하고 반개는 문명으로 향하며, 그 문명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진보하는 과정에 있다”⁷⁾는 인식은 서구 근대의 실현은 물론 추월의 가능성까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외교권 박탈에 이어 1907년 고종이 강제 폐위당하면서 서구적 근대를 향한 꿈은 좌절된다. 이후 신문지법이 제정(1907)되고 사립학교가 규제되는 등 본격적인 식민지 탄압이 시작되면서 교육과 실업으로 실력을 기르고 애국의 열정으로 국가정신을 함양하면 머잖아 문명 제국에 합류할 것이라던 기대는 실질적으로 봉쇄되고 만다. 그것은 곧 서구 문명=선(善)이라는 인식의 동요를 의미한다. “문명이라는 글자를 잘못 해석하여 옹용평화함으로 행복을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완만한 꿈”⁸⁾이며 교육과 애

7) 福澤諭吉, 정명환 옮김, 『문명론의 개략』, 광일문화사, 1987, p.23.

8) 『대한매일신보』, 1908.8.9.

국 정신으로 국가 경쟁력만 키우면 도달할 수 있을 듯 보였던 문명 세계는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눈 앞에는 오히려 생존과 잃어버린 민족만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1914년에 발발하여 1918년까지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은 서구 문명의 허상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구주대전(歐洲大戰)’이라 불렀던 제 1차 세계대전은 유럽 문명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 “한번 구주 열강을 바라보라. 포성이 동지(動地)하고 연기가 창천(漲天)하며 칼끝에서 불이 나고 눈안에서 피가 나니 이것이 진실로 지옥이요 이것이 진실로 악마”⁹⁾란 진술에서 보듯 유럽인은 이제 문명인이라기보다 잔인한 세계의 주인공이었다.

결국 서구문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함에 필요만 있으면 전쟁도 좋소 평화도 좋소 평화적 무장도 좋소 무장적 평화도 좋도다. 다만 그 생물생존의 법칙에 대한 필요 유무의 정도 여하에 의하여 수시로 진퇴굴신(進退屈伸)할 바이지 거기 무삼 영세불변(永世不變)하는 시비정사(是非正邪)가 있으리요”라는 방향상실이 시대의 저변을 흘러 다녔다. 그러나 서구 문명의 절대 신화가 깨어지고 방향상실은 역설적으로 개인의 발견과 민족의 새로운 위상을 탐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주 속의 개인이 발견되고 인류 속의 민족이 발견된 것이 때쯤이다.¹⁰⁾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문명을 대신하여 미국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미국의 참전으로 세계대전은 “인류의 도덕적 양심과 악마와의 전투”¹¹⁾로 새롭게 평가되었으며 미국은 그 중심에서 구원의 존재로 등장했다. 특히

9) 장덕수, 「신춘을 迎하여」, 『학지광』4호, 1915.2, p.1.

10) 권보드래,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과 인류」, 『정신문화연구』1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p.314.

11) 「구주대전 이후의 민족적 이상의 진화」, 『개벽』33호, 1923.3, p.17.

전쟁 종식에 앞서 윌슨이 제시한 3대 원칙, 무배상·무합병, 민족자결주의, 국제연맹이라는 세계 구상은 평화의 새 시대를 전망하고 있었다.¹²⁾

평화의 세계에 대한 가능성은 ‘인류’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세계 보편의 인식을 등장시켰다. 1900년대는 보편적 인간보다 국민을 강요했으며 세계에 대한 이해에 앞서 부강한 국가 건설의 과제가 주어졌다. 1900년대는 강약의 대립 안에서 ‘부국강병’을 통한 서구 문명의 실현만이 목표였다. 세계사의 편입을 말하면서도 세계 보편의 가치는 낮은 것이었다. 국권 상실과 제1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인식을 흔들어놓았다. 부국강병은 결과적으로 미래의 전제조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힘의 충돌만을 낳을 뿐이었다. 문명과 부국을 통한 궁극적인 가치의 실현이 오히려 문제였다.

이러한 인식이 전면화 되는 1920년대 초기에 한국의 지식 체계가 그 가시적 형태를 드러낸 것은 당대의 지식에 내재한 지배적 이념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류와 세계에 조응하는 보편성을 조선 민족 혹은 국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이것이 당대 지식의 지배적 이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당대의 매체를 통해 주로 표현된 바 있다. 최남선의 『소년』과 『청춘』, 일본 유학생의 대표적인 매체였던 『학지광』 등은 세계 보편적 이념과 인류적 가치를 전파하고 생산하는 주요 매체였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간행된 안환의 『조선문학사』 등은 당대 지식의 지배적 이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서이다. 국문학사는 '서구적 보편적 근대와 한국적 근대의 특수성 사이에서 자기 모순을 살아야 했던 한국 근대 문학의 역사적 조건을 전제¹³⁾한다는 점에서 국문학사의

12) 이러한 미국 신화에 기초한 인류 일반의 새로운 가능성은 워싱턴 회의 등에서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기 전까지였다.

13) 이광호, 「모순으로서의 근대 문학사-20세기 한국 문학사에 대한 비판적

보편적 상승이라는 열망을 내재하고 있다. 국문학사의 대표적인 초기 저술인 안확의 『조선문학사』(1922)는 민족 국가 수립의 열망을 내장한 “민족 해방의 메타포”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 담론이 외화된 장으로써 조선문학사의 세계문학사적인 근거, 즉 서구 근대적 보편성이 『조선문학사』란 저술 속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는 당대 국학의 보편-특수 관계를 이해하는 주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1919년 3·1운동 전후의 세계사적 보편성, 즉 인류와 세계의 보편 인식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국문학사 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근대 초기 보편 이념의 형성 과정

1. 『소년』의 이념과 보편성

190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국학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기획 속에서 ‘자기 긍정’의 정치적 열정을 자국 내부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지식 체계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당대의 국학은 역사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이라기보다 정치적 동원의 의미를 강하게 지닌 이념적인 것이었다. 특히 자기 긍정을 통해 내적 통합과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는 정치적 이념의 하나였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당대의 주요 매체는 국학의 지식과 이념을 생산하는 전지기지로서 다양한 민족 담론을 쏟아내고 있었다. 특히 ‘광개토왕비문’의 발견과 비문 텍스트의 독해를 통한

서설, 『문학과 사회』 1999년 겨울호, p.153.

민족의 '창조'는 1900년대의 지적 흐름을 압도하였으며 국학의 지식과 이념으로 집적되었다. 즉 신문이나 잡지, 교과서 등은 광개토 왕비와 같은 고고학적 발견을 민족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 하여 민족의 지식체계를 형성해가고 있었다.¹⁴⁾

하지만 비슷한 시기 최남선의 경우는 국학의 일반적 논의에서 벗어난 매우 특이한 경향을 보여준다. 국가 상실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몰입하던 시대의 지적 흐름과 달리, 최남선은 '인류와 인간', '우주와 '세계'라는 보편성에 접속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을 구성해가고 있었다. 1908년부터 1911년까지 간행되었던 『소년』은 1900년대의 매체 중에서 매우 이채로운 잡지였다. 『소년』은 당시의 지식 일반은 물론 모든 글쓰기의 중심 가치였던 '국가'나 '민족' 담론에서 벗어나 톨스토이를 외치고 있었다. 각종의 신소설과 변안소설조차 정치라는 표어를 알리바이로 내걸던 때에 『소년』은 톨스토이를 통해 '인간과 인류'를 문제 삼고 있었다. 「사랑의 승진」, 「어른과 아해」, 「한 사람이 얼마나 땅이 있어야 하나」 등 『소년』을 통해 소개된 톨스토이의 소설들은 세계 보편의 이념인 인류와 세계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다.¹⁵⁾

또한 조선의 세계적 확장 가능성을 강조한 「해상대한사」는 12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교량에 위치한 조선 반도의 지리적 의의를 말한 바 있다. 해양과 대륙문화의 융화와 집대성, 해륙문화의 전파와 소개 등을 통해 조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을 고립과 폐쇄로부터 인류의 일원으로

14) 앙드레 슈미드,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p. 52.

15) 『소년』지에 실린 톨스토이 작품 번역이 지닌 당대의 의미는 이미 권보드래 등에 의해 논의된 바가 있다. 권보드래, 「최남선의 톨스토이 취향」, 『근대문학연구』12집, 2005. 참조

등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¹⁶⁾

세계관념·박애주의는 自重心과 愛國誠을 滅殺한다 하난 자는 웃던 어리석은 자냐. 만일 그 식견의 좁은 것으로써 애국이라 할진댄 井底의 蛙가 참 최대 애국자일지오…… 애국이란 제 나라만 좇타하난 것이 아니라……애국심이란 것은 우주를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난 것이오.¹⁷⁾

「해상대한사」에서 말한 조선의 지리적 위상이 국가보다 세계, 박애, 우주와 같은 세계 보편적 이념과 관련된 것임을 이 글은 밝히고 있다. 애국의 근거를 세계, 인류 나아가 우주에서 찾고 애국심은 그 조건 위에서 실현될 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세계, 인류, 우주라는 보편성과 대면하기 위한 통로로 이해된다. 이는 결국 당대 국학의 지식과 이념의 경계가 국가를 넘어 세계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연스럽게 국민으로 규정된 개인이 회복되고 그 개인의 존재 영역을 무한히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관념이 만들어졌다.

최남선의 논의는 당대 국학의 이념과 지식 체계를 새롭게 한다. 최남선은 “우리는 국가란 것과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 이상경을 현출하난데 필요한 과도적 희생”을 했다고 지적하고 조선의 ‘대정신’을 “우주와 갖은 始終으로” “정의의 수호자”와 “至善의 노력자”라고 밝힌다.¹⁸⁾ 그래서 우리 역사를 “종으로는 正義를 호

16) 「해상대한사」는 부분적으로 자민족 중심주의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글의 지향점은 조선의 세계사적 위치 속에서 고립과 폐쇄성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자민족 중심주의에 관해서는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대동문화연구』48집, 2004. 참조.

17) 「지리학 연구의 목적」, 『소년』2년 10권, 1909. pp.94-95.

18)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이 우주의 원리와 인류의 최고 이상을 전제로 한 것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남선은 이를 통해 단군의 역사적 실재성을 보편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바가 있다.

지한 사실의 연락이고 횡으로 至善을 추구한 사실의 전개”로 설명한다. 여기서 조선은 ‘정의’와 ‘지선’이란 보편의 가치를 지닌 민족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수한 문명국으로서의 조선을 선언한 것이다. 「해상대한사」에서 말한 바처럼 일신교를 유대교보다 앞서 선취했으며 민주 공화제를 시행하고 국제무역과 공예, 문예 등에서도 선진적인 성취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최남선에게 조선은 이미 보편적인 민족인 것이다.¹⁹⁾ 이는 비록 문명에 대한 선취의 강박증세가 없진 않지만 조선의 ‘보편적 가치의 독자적 구현’ 즉 국학의 보편성 실현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2. 『청춘』에 나타난 세계와 인류의 구성원리

『소년』을 이어 『청춘』은 최남선의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매체이다. 『청춘』은 당대 최신의 지식들을 소개하면서 우주의 질서와 존재 원리, 이에 기반한 인류의 구성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인식체계를 살피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우선 『청춘』은 새로운 과학 지식과 역사, 세계지리, 세계문학, 한시, 소화(笑話), 해외토픽 등 다양한 글쓰기 양식 속에 세계 지식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들은 주로 문학, 역사학, 천문지리학, 물리학, 생물학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소개 방식 또한 다양하다. 「세계대도회」란 화보를 통해 세계 도시를 화보로 보여주는 한편 「세계의 창조」란 글에서는 우주와 인류의 생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명물수취(名物數彙)」에서는 물목을 세는 단위를 정리하기도 하고 「소천소지(笑天笑地)」란을 통해 풍토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계문학개관」이나 「섭렵소초(涉獵小

19) 최남선, 「해상대한사」12, 『소년』3년 6권, 1910. pp.37~42.

抄)란 제목 아래 세계문학과 우리의 옛 글을 소개하는 등 최남선의 『청춘』은 근대 초기 학문과 생활, 문학과 일상을 망라한 종합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청춘』은 특별한 학문 체계 분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글을 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춘』 창간호에 실린 「인종」이라는 글에서 최남선은 인종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든지 분류한 바 인류의 한 무리”라는 정의를 통해 임의적 기준에 의한 폐단을 경계하고 있다.²⁰⁾ 즉 인위적 분류는 여러 기준들 중에 하나만을 기준으로 세계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폐단이 심각함으로 천연·자연적 존재를 분류하는 자연분류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분류를 통해 세계는 생물/무생물, 그리고 인류/동물/식물로 분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청춘』지에 실린 글들의 목차가 이와 같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²¹⁾ 잡지의 앞부분에 우주 만물의 이치를 논하는 「세계의 창조」를 싣고, 그 뒤로 인류와 동물의 특징을 살핀 글들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세계 각국의 사랑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분류 체계를 고려한 것이다.

특히 「널리 人類를 보라」에서 최남선이 밝힌 인류를 분류하는 기준은 기존의 분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반박한다. 피부색이나 미추, 얼굴 각도, 머리털 길이, 수염, 키 등 인종의 체질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반박하면서 최남선은 “진실로 인류에 대하여 논코자 하는 이는 (...) 두루 인류 전체를 둘러보아야 할 것이라”라고 주장한다. 이는 최남선의 인류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며 인류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20) 이경현, 「<청춘>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문학」, 『한국문화』43집, p.329.

21) 이경현, 위의 글, 『한국문화』43집, p.330.

「세계일주가」(『청춘』 창간호)는 이러한 인류의 구성 원리를 ‘문명’이라는 보편적 테마 속에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양에서 출발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구미 지역과 대서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 그리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를 세계일주하면서 「세계일주가」는 각 지역의 문명국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준다. 즉 각 지역의 도시, 건축, 산업, 학교 등을 소개하면서 사원과 대문호 톨스토이, 대학과 다양한 서적 출판 등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세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의 문명적 발전은 인간의 ‘노동(勞働力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노동은 문명과 진보, 독립과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이며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남선은 인류가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곧 “세계지리 역사상 요긴한 지식을 득하며 (...) 조선의 세계 교통상 추요(樞要)한 부분임을 인식케 할 주지로 배차(排次)된 조선의 의미를 특별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조선의 세계적 의미를 세계지리적 조건 속에서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독자성이 세계 보편 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물론 “동등한 인류”²²⁾의 위상 속에서 인류 전체의 진보 역사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결국 『청춘』의 독특한 편집 방식은 우주로부터 생물이 탄생한 것이며 그 생물은 다시 인류와 동식물로, 나아가 인류는 국가, 도시 등 작은 단위의 사회로 분화된다는 인식을 형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조선의 독자성이 세계적 보편과 우주의 분화 과정에 놓여 있음을 밝히고 있다.

22) 「勇氣論」, 『청춘』11호, 1917.11.16.

3. 『학지광』의 개체 초월과 세계보편

『소년』과 『청춘』에 제시된 다양한 세계 정보나 시각 자료 등은 조선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벗어난 세계의 구축과 관련된다. 조선을 내부가 아니라 세계로 연결시키고 개체보다 우주를 전제하는 새로운 감각이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감각과 논리로 본다면 기존의 가치나 지식 체계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1900년대 국학의 이념을 형성하는 ‘민족’과 ‘조선’의 의미도 세계란 보편 속에서 재구축된다. 여기서 보편성에 대한 감각은 국가와 세계, 개체와 우주를 연결하는 관념인 된다. 따라서 국가(민족) 중심의 1900년대의 국학의 이념과는 다른 새로운 이해와 감각이 등장한다. 1910년대의 진공 혹은 대중과의 소통 부재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감각과 이해는 1920년대의 논리로 새롭게 등장한다. 일본 유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간행한 『학지광』의 주요 논조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학지광』은 3호 발간의 자리를 빌어 “外 우주를 觀解하며 內로 자기 통일과 자기 확립의 광명이 되기를 원하는 바”²³⁾라고 밝히며 우주적 실재로서 자기(개체)의 위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그 개체는 “우주의 근본자”로서 일상에 편재한 “절대 무한의 생명력”²⁴⁾을 지닌 존재이다. 곧 개체는 무한의 생명체로 우주라는 보편성과 합일한다. 이러한 개체의 우주적 보편성은 『학지광』의 또 다른 지배적 논조였던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의 논리를 해소하는 관점이 된다. 약육강식의 “어름갓흔 사회”²⁵⁾에서 오는 유한한 개체의 공포감을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자기의 현실적 상황을 초월하는 내적 계기를 우주적 보편성에서 찾고 있는 것

23) 장덕수, 「학지광 3호 발간을 임하야」, 『학지광』3호, 1914.12. p.3.

24) 장덕수, 「의지의 약동」, 『학지광』4호, pp.43-44.

25) 장덕수, 「학지광 3호 발간을 임하야」, 『학지광』3호, 1914.12. p.2.

이다.

『학지광』에서는 이러한 개체의 초월성이 ‘동정’과 ‘사랑’이란 구체적인 가치를 통해 실현된다고 제시한다. 기독교적 색채가 짙은 동정과 사랑의 가치는 개인의 제한성을 넘어 타자 혹은 사회와 결합하는 방식이자 윤리적 가치이다. 『학지광』의 여러 지면에서는 동정과 사랑이란 가치가 현실을 넘어서는 인간의 내적 가치로 서술하고 있다.²⁶⁾ 나아가 개체의 내적 가치를 ‘이상, 인격, 수양, 자유, 독립’ 등의 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체의 자기 초월성을 내적 세계의 실현으로 이해한다.

이와 함께 개체의 내적 실현을 통한 우주와의 교감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의 필요성이 역설된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개인의 생존과 인격 완성을 위한 사회의 필요성과 개인의 생존을 전제한 사회가 그것이다.²⁷⁾ 그러므로 사회는 내부의 초월적 계기를 자각한 개체의 집합으로 자각적인 초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 가치는 ‘문화적 가치’로 불리며 역사진화와 관련된 인류의식을 표상한다. 또한 사회는 인류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으로 확대된다.

그런 점에서 문화를 매개로 해서 민족이 논의될 때, 민족의 이상과 가치란 문화 창조를 통한 인류 정신의 실현을 의미한다. 즉 개체를 초월하는 문화적 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와 세계에 민족이 얼마나 독자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민족의 가치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당시 세계 질서의 급격한 변동, 즉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유럽 문명의 내부적 붕괴 과정은 인류라는 보편적 가치

26) 김영섭, 「이상적 인물의 실력과 수양」, 『학지광』3호: 장덕수, 「의지의 약동」, 『학지광』5호: 김이준 「출진하는 용사 계군에게」, 『학지광』6호: 추송생, 「오인의 이상」, 『학지광』6호: 전영택, 「全的 생활론」, 『학지광』12호, 1917.4 등의 글에서 이러한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27) 설산, 「사회와 개인」, 『학지광』13호, 1917.7.

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 시기에 ‘사랑, 인류, 세계, 자유, 평등, 정의, 인도’²⁸⁾ 등의 어휘가 더욱 강조되고 인류라는 보편적 주체 혹은 보편적 가치가 전면적으로 대두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랑, 인류, 세계’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대면한 민족은 인류의 일원으로서 세계를 구현하는 주체가 된다. 당연히 구미도 인류의 일원으로 인식된다. “너도 밥 먹고 똥 싸며 우리도 밥 먹고 똥 싸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문명하면 우리도 문명할 수 있다”는 재인식에 이르게 된다.²⁹⁾ 민족은 비로소 독자적 가치로 재발견되며 세계의 공간에서 주체로 발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독립선언서』에서 밝힌 ‘조선의 독립과 자주’가 ‘세계 평화와 ‘인류 평등’의 근거 위에서 실현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1920년대 국학의 이념은 평화와 인류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민족의 독자성을 그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안확의 세계인식과 『조선문학사』

『학지광』에 여러 편의 논설을 발표한 바 있는 안확³⁰⁾은 1920년대 국학의 가시적 형태를 『조선문학사』, 『조선문명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안확의 국학은 기본적으로 『학지광』과 당시의 문화론적 맥락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³¹⁾ 또한

28) 박석윤, 「자기의 개조」, 『학지광』20호,

29) 김억, 「서양사람이 조선사람 사진 찍는 것을 보고서」, 『개벽』35호, 1923. 5. p.82.

30) 최원식, 「안확의 국학」,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2, p.252.

31) 류준필, 「1910~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 과정」, 『대동문화연구』5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5, p.36.

1922년과 1923년 연이어 출간한 『조선문학사』와 『조선문명사』는 근대 초기 이후 형성되어온 국학 이념의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04년 경부터 자국학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안확³²⁾이 자국학의 탄생을 보편성의 관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외래문명에 현혹하여 맹목으로 충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평등을 이상하여 표준을 정치적 방면에 치(置)하였나니 (……) 또한 국가의 기왕을 지하야 외에 향한 대항심을 자양하는 풍기가 기(起)함에는 조선 지리와 역사를 수학함에 대정신을 치(置)하였나니 (……) 조선어 연구가 학계의 일 신사조를 생(生)할새³³⁾

위 글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흥한 국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성을 그 기준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에 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구문명에 대한 맹목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란 보편성을 내적 근거로 하는 국학의 발흥, 그것은 민족 내부에 잠재된 보편성의 발견을 의미한다. 국학은 이 보편성을 독자적으로 실현하는 민족의 문화적 가치에 다름 아니다. 『조선문명사』의 서두에서 안확이 말한 조선민족의 생활사는 독립 내지 특수적 문명을 발휘함으로써 ‘생명을 생명’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생명에 내재한 의미가 인류 보편의 가치에 닿아 있음을 간취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안확의 글에서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 때 문학은 보편적 이상과 관련된다.

금(今)에 문학과 정치와 비견하면 정치는 인민의 외형(外形)을 지배하는 자요 문학은 인민의 내정(內情)을 지배하는 자이라 고로 일(-)

32) 최원식, 앞의 책, p.252.

33)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p.123.

국민의 문명을 고(考)함에는 정치의 변천보다 문학의 소장(消長)을 찰(察)함이 大하며 또한 정치를 부흥코자 할진대 먼저 인민의 이상을 부흥하여야 기공(功)을 可得하나니라³⁴⁾

안확에게 문학은 ‘內情’이며 정치는 ‘外形’이다. 그리고 ‘국민의 문명’을 위해서는 정치에 앞서 ‘문학’을 통한 ‘인민의 이상’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한다. 문학이 “인간의 정신상 감명과 이상상(理想上) 활동을 여(興)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즉 문학이 실현하는 ‘인민의 이상’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족의 문학 또한 자기 초월을 통한 세계와 인류의 사명을 자각하는 ‘문화적 가치’를 의미한다.³⁵⁾ “열국(列國)이 자국사상을 발휘하여 각각 민족성을 경쟁함에 발발(勃勃)하는 상황에서 문학은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문화인 것이다.

안확은 『조선문학사』에서 “국민의 심적 현상의 변천 발달을 추구(推究)하는 것”³⁶⁾이 문학사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속에는 ‘국민정신사의 하나로 문학의 역사를 등치시키려는 의도와 근대 국민국가로 이전의 모든 역사과정을 수렴하려는 소급주의가 내비치는 것도 사실이다.³⁷⁾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안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질에 대비되는 정신의 발달사를 통해 민족적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정신사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질에의 종속성을 탈피하고 국민국가로서의 세계 보편성을 민족정신 속에서 확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로부터 정신을 회복하는 ‘자각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조선문학사』가 “자각론의 서문”인 이

34) 안확, 「조선의 문학」, 『학지광』6호, p.64.

35) 류준필, 위의 글, p.53.

36)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p.2.

37) 한기형, 「이념의 구심화에서 실용적 확장의 증식구조로」, 『고전문학연구』 2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p.52.

유도 여기에 있다.

자각이란 인간의 개체성 발견이란 관점에서 인도(人道)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 인도는 ‘이상, 진화, 만족, 有靈力’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도(天道)의 ‘자연, 순환, 無靈力’과 구분된다.³⁸⁾ 또한 인도의 이상과 진화는 이성으로 “감각적 자아를 억제 융화하여써 자기 본성의 만족을 구하는 것”³⁹⁾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도의 진보는 ‘자주’, ‘자유’, ‘자치’라는 보편적 가치로 연결된다.⁴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족’이라는 단위가 이 보편적 가치를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민족은 개체의 외부성, 즉 자기 중심의 내부성을 초월한 결과이자 집합체로서 인류 보편이란 ‘문화적 가치’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므로 안확에게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은 자주, 자유, 자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구현된다. 안확이 ‘조선승배’라는 민족적 정체성의 둘레를 ‘평화, 순응, 인도, 정의’ 등으로 끊임없이 순화시켜나간 것도 그런 증거라 할 수 있다.⁴¹⁾

민족의 문화적 가치 속에 내재한 보편은 문명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선문명사』에 등장하는 단군은 여러 민족들의 통합 과정을 거쳐 새롭게 구성된 민족의 수장을 의미한다. 안확에게 민족적 동질성은 서로 이질적인 민족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공동의 관습, 풍속 등을 포함한 문화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단군은 문화적인 “공동 혈족의 통치자”이자 “공동 조선(祖先)”이며 “조선인의 공동 조선이 즉 천(天)이라는 관념”⁴²⁾을 내재한 존재로 민족의 내적 동질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자발적으로

38) 안확, 「자각론」, 회동서관, 1920, p.45.

39) 안확, 앞의 글, pp.5~6.

40) 안확, 앞의 글, pp.4~5.

41) 『조선문학사』는 물론 「조선인의 민족성」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2) 안확, 앞의 글, p.18.

공통의 조상을 추대하는 자치제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 공통의 조상은 혈족적 관념으로 전이되면서 민족 구성원의 내적 동질성의 근거가 된다. 결국 안화는 자기 초월적이며 이질적인 여러 종족들이 공동화되면서 혈족적인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민족 형성 과정이라 보고 이를 보편적 가치의 독자적 구현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조선문학사』나 『조선문명사』 서술의 목적은 바로 민족의 독자성에 있으며 이는 자각, 자기초월이라는 보편적인 내적 근거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때 자각은 문화적인 자기 초월이며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로서 민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이는 곧 자기를 보편으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국문학사나 문명사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IV. 결론

근대 초기 조선의 지식 체계에 내재한 국학적 이념과 세계 보편적 인식은 동시적인 것이다. 더욱이 서구문명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나면서 1910년대 말 이후의 조선의 지식과 이념은 서구 문명에 대한 열정과 집단적 착시보다 인류 보편의 가치 속에서 조선의 독자성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게 된다. 이는 당대의 주요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있다. 『소년』, 『청춘』, 『학지광』 등에서 밝힌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인류의 구성 원리, 사랑이나 동정과 같은 인류적 정서 등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의 이념적 방향은 『조선문학사』나 『조선문명사』와 같은 국학 저서 속에서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특히 물질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세계 보편성을 민족 정신 속에서 확인하

자는 『조선문학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확이 주장한 자각론은 개체성의 발견을 넘어 이상과 진화를 실현하는 ‘문화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초기 문학사 서술의 중요한 원리이며 이후의 문학사가 보여준 조선의 독자성 속에 내재한 인류 보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소년』, 『청춘』, 『학지광』, 『조선문학사』, 『조선문명사』

2. 논문

권보드래,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과 인류」, 『정신문화연구』1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p.314.

류준필, 「1910~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 과정」, 『대동문화연구』5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5, p.36.

이광호, 「모순으로서의 근대 문학사-20세기 한국 문학사에 대한 비판적 서설」, 『문학과 사회』1999년 겨울호, p.153.

이경현, 「<청춘>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문학」, 『한국문화』43집, p.329.

한기형, 「이념의 구심화에서 실용적 확장의 증식구조로」, 『고전문학연구』2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p.52.

3. 단행본

차승기, 『민족주의, 문학사, 강요된 화해』, 김철신형기 외, 『문학속의 파시즘』, 삼인, 2001, p.43.

최원식, 「안학의 국학」,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2, p. 252.

앙드레 슈미트,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p. 12.

福澤諭吉, 정명환 옮김, 『문명론의 개략』, 광일문화사, 1987, p.23.

The perception of the world in media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and Joseon Literature History

Park, Seung-Hee

This study looked into the perception of the world shown in media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The perception of the world means a universal aspect of the ideology of knowledge back then, namely, 'the independent realization of universality'.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the passion for Western civilization showed a substantial change after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in 1910. In other words, after the descriptive desires of modern intellectuals, who pursued the symbols of nation and civilization at the same time, which were the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as well as the inclusion into civilized countries, were practically blocked, Western civilization that had defined knowledge and ideology of that time and up to now, began losing the meaning of its universality. Also, World War I, which broke out in 1914 and lasted to 1918, more clearly demonstrated the false image of Western civilization.

Such a change attracted the appearance of the perception of a worldwide universality, based on the community sentiment of 'human beings', and Joseon accepted the world historic value as the ideology of knowledge of the time as a member of world history. Such an ideology was mainly expressed via the media of the period. Media, including Choi Nam Seon's 『Boy』 and 『Youth』, and 『Hakjigwang』, a representative medium of students studying in Japan, were major vehicles to spread and produce the worldwide universal ideolog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s. Also, books for Korean literature studies such as Ahn Hwak's 『Joseon Literature History』, established the worldwide universal ideology and its value. This may be the harboring of a desire for a universal uprising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Key words : The early modern period, Media, 『Boy』, 『Youth』, 『Hakjigwang』

박승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소: 706-180 대구시 수성구 옥수동 태왕월드하이츠 103동 801호

전화번호: (053) 810-2127

전자우편: bround33@ynu.ac.kr

이 논문은	2008년 11월 13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